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Dynamic Green Wonju with New Hopes

원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쾌적한 환경을 갖춘 도시,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넘쳐나는 매력적인 도시, 더불어 잘 사는 건강하고 따뜻한 도시를 지향하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도시이다.

그러나 도심 속에는 여전히 딱딱하고 건조한 건물이 많아 시민의 건강한 삶을 돕는 도시로서의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이를 어떻게 보완하며 극복하느냐가 우리 원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일 것이다.

그 동안 원주는 기업·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면서 비약적인 인구의 증가를 가져왔고 성장과 발전의 과정에서 도로와 건물을 짓는데 우선한 결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격자형 아파트와 일반주택을 어디에서든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되고 말았다. 이는 시민의 정서와 만족을 고려치 않은 도시환경을 만들어 낸 것으로서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원주시는 지난 7월 민선 5기 시작과 동시에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민 중심의 푸른 원주”를 만들기 위해 도로를 내고, 건물을 만드는데 있어서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서 출발하고 있다. 현대의 건축물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주위 환경을 고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가 도시를 디자인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깊이 고민해야 할 점은 도시 전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아 도시 곳곳에 같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을 창조하고 사람과 도시환경이 어우러지는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어 나아가겠다는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비록 개발의 논리에 의해 보급된 천편일률적인 격자형의 아파트와 건축물이 맘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호흡하는 공간인 이상 도시의 모습을 존중하고 유지하면서 앞으로 건축물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도심 속의 여백의 미를 살림과 동시에 시민과 함께 숨 쉬는 도시의 모습을 만들어 갈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천혜의 자연과 함께하는 우리 지역이 오히려 서울에 비해 도심공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원주시는 시민의 휴식 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심공원의 푸른 숲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10분이면 어느 방향으로든 편안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위해 노력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방법과는 다르게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하여 도심 속에 푸른 공원을 만들고 건물대신 광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쉼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어 나아갈 것이다.

아울러 사회 통합적 차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릴 수 있는 체육관과 체육 시설 공간을 조성하여 장애인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힘을 기울일 것이다.

이는 우리가 당면한 최우선의 과제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며, 도심 속 푸른 공원 조성과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를 통해 시민중심의 행복하고 푸른 도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갈 것임을 확신한다.

오늘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은, 현대인들은 언제나 걷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도시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이러한 보편적인 가치를 상실하고 이윤과 개발에 눈먼 채 여기까지 달려왔다.

이제는 원주시장 한 사람의 소망이 아닌 31만 모든 시민의 바람을 하나로 모아 원주의 아름다움과 품격을 높여 갈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에 건축계에 몸담고 계시는 여러 선후배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

도심 속에 건조했던 건축물들이 시민들의 꿈과 함께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공원 도시 원주”로 변모해 나아갈 것을 확신한다. ■



원창목 / Won, Chang-mug
원주시장

약력

- 건축사
- 수도권전철 추진위원장
- 세명대학교 겸임교수
-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현 전국 혁신도시협의회 회장